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2호

I	<p>지역 농식품 베트남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 실시</p>	
II	<p>선도유지 기술로 무장한 '수삼' 수출시장 넓힌다</p>	
III	<p>국산 참다래 대만 수출 가능 알림</p>	
IV	<p>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을 위한 선과장 및 재배온실, 수출업체 목록 송부</p>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2호 2021. 11. 30(화)

‘21.10.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91.7억\$

##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0.2% 1,223.8백만불	13.0% 5,706.3백만불	20.6% 2,238.1백만불
+ 인삼류, 김치, 포도, 돼지고기 - 닭고기, 버섯류, 파프리카	+ 과자류, 커피조제품, 음료, 면류 - 연초류, 주류, 생우유, 캔디	+ 김, 참치, 굴, 대구, 명태 - 미역, 고등어, 봉장어, 바지락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b>미국</b> 1,366.3백만불(10.5%) 물류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류 인기 중심으로 건강식, 간편식 수출 호조세	▲ 과자류(15.7%), 소스류(15.3%) 김(9.0%), 어류(29.9%), 쌀가공식품(22.4) ▼ 음료(△4.1%), 라면(△5.5%)
<b>중국</b> 1,614.1백만불(25.2%) 소비 장려 정책과 연휴철 맞이 농식품 선물 수요 증가로 수출 상승폭 확대	▲ 김(38.7%), 과자류(37.4%) 음료(49.5%), 인삼류(33.2%) ▼ 라면(△8.5%), 소스류(△3.8%)
<b>신남방 (ASEAN + 인도)</b> 1,883.6백만불(19.5%) 외출제한조치 영향으로 간편식(라면, 커피, 과자, 만두, 빵)수출 증가	▲ 참치(11.0%), 음료(9.5%) 라면(5.4%), 커피조제품(24.1%) ▼ 장류(△12.0%), 닭고기(△21.4%)
<b>일본</b> 1,682.8백만불(3.5%↑) 김치, 라면, 소스류, 식초, 쌀가공식품 등 가정식 수출 호조세	▲ 김치(69.1%), 참치(38.4%) 식초(52.6%), 라면(31.3%) ▼ 김(△16.8%), 주류(△10.5%)
<b>EU + 영국</b> 567.7백만불(22.5%↑) 김치, 라면, 김, 참치 수요 증가와 식품첨가제 시장 성장으로 수출 성장세	▲ 참치(22.9%), 라면(24.4%) 김(51.6%), 소스류(55.3%) ▼ 커피(△15.8%), 당류(△36.0%)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92호 2021. 11. 30(화)

## 품목별 이슈

\* 실적 : '21.1.1 ~ 10.31

### □ 김치

- (일본 69.1, 16.1↑) 면역력 확보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 및 재택근무의 확대로 수출 증가
- (미국 23.4, 25.4↑)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 제정 등 김치 우수성 홍보, 오징어게임 인기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

**136.1백만불(14.3%)**

주요 수출국 : 일본(69.1백만불, 16.1%), 미국(23.4, 25.4%), 홍콩(6.5, 3.6%), 대만(5.7, 15.1%), 영국(4.8, 57.4%), 네덜란드(4.5, 17.4%)

### □ 라면

- (신남방 112.0, 5.4↑) 코로나 강제 국가 중심으로 간편식인 라면 수요증가, 한류 영향으로 수출 확대
- (미국 64.3, △5.5) 현지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 기저효과 및 물류 이슈로 인해 실적 소폭 감소세
- (일본 53.1, 31.3↑) 한류 영향, 간편식 및 매운맛 수요 확대로 매운맛 면류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

**542.2백만불(7.5%)**

주요 수출국 : 중국(117.6, △8.5%), 미국(64.3, △5.5%), 일본(53.1, 31.3%), 대만(26.2, 27.2%), 태국(23.6, 5.0%), 필리핀(22.1, 10.5%)

### □ 음료

- (중국 79.8, 49.5↑) 어린이 과실음료 인기 지속, 건강 추구 트렌드로 인해 두유 등 식물성 음료에 대한 수요 증가
- (미국 65.2, △4.1) 건강 중시 트렌드로 과일음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이거나, 대미 물류 애로 장기화로 감소세
- (베트남 29.9, 6.2↑) RTD차, 저당·무당음료 등 편의성과 건강기능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406.0백만불(17.3%)**

주요 수출국 : 중국(79.8, 49.5%), 미국(65.2, △4.1%), 캄보디아(60.3, △3.6%), 베트남(29.9, 6.2%), 러시아(17.4, 35.3%), 일본(12.6, 94.4%)

### □ 굴

- (일본 27.4, △10.5)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및 한국산 굴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실적 감소세 지속
- (미국 21.7, 50.8↑) 백신 보급으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활성화로 냉동굴(외식체인), 가공제품(가정용) 수출실적 증가
- (홍콩 10.7, 39.7↑) 외식 소비 회복으로 식자재 수요 및 가정용 소포장 생굴 소비 증가로 실적 상승

**74.0백만불(15.6%)**

주요 수출국 : 미국(21.7, 50.8%), 일본(27.4, △10.5%), 홍콩(10.7, 39.7%), 중국(2.6, △9.3%), 대만(2.4, 110.3%)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 농진청 이슈



### 지역 농식품 베트남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 실시

농촌진흥청은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와 공동으로 11월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농식품 베트남시장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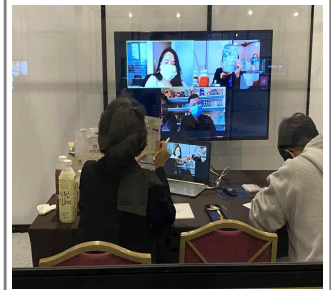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베트남 현지 농식품 바이어(구매자)를 대상으로 농식품의 수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수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 수출경영체 20개소(신선농산물분야 11개소, 가공식품분야 9개소)와 베트남 현지 17개 바이어사가 참가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의 하나그룹과 수출경영체 사이왕영농조합법인은 27만 달러의 샤인머스켓 수출협약을 성사시켰으며, 총 366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 상당의 수출 가계약을 체결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상담회의 참여 바이어와 경영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건의, 연구사업 반영,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상담회 업무 협약식>



<상담 장면>

### 선도유지 기술로 무장한 '수삼' 수출시장 넓힌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삼'의 선도유지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시장성을 평가하기 위해 10월 31일 베트남에 시범 수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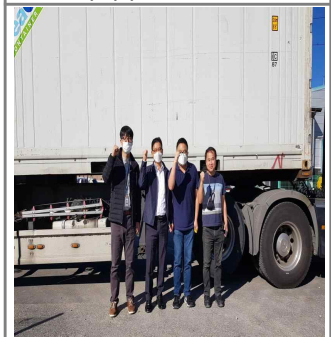
베트남은 우리나라 인삼 수출 유망 국가이다. 올해 9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32.5% 증가하는 등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보여 한국 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베트남에 시범 수출된 수삼은 통관 과정을 거쳐 현지 오픈마켓(열린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 전문가와 소비자 평가를 받는다. 또한, 선도유지 기술 적용 효과와 5~15kg 규격의 벌크 포장에 따른 수삼의 품질 유지 효과를 검증하고, 수출 수삼의 품질, 적정 가격, 구매 선호도 등 시장성도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시범 수출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삼의 수출시장 확대와 기술 확산에 주력해 국내 수삼가격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척수삼 MA포장>



<수삼 수출 상차>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 국산 참다래 대만 수출 가능 알림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월초 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대만 측에 송부하였다. 대만에서 11.26일자로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 알려줌에 따라 올해에도 대만으로 참다래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로 대만에서 현지조사를 못한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출 검역을 통해 대만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수출시스템의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국산 참다래의 수출검역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을 위한 선과장 및 재배온실, 수출업체 목록 송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필리핀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1년도 필리핀 수출에 참여할 수출 선과장 및 재배온실, 수출업체 목록을 필리핀측에 송부하였다. 검역본부는 고품질 파프리카가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출 검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우리 농산물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http://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